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1월 21일(일) 총 4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자치경찰운영과	담 당 자 • 자치경찰운영팀장 김상엽 ☎458-7281 • 담당자 김지선 ☎458-7283				
사 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 ‘어린이 안전’ 에 더욱 힘쓸 것

- 인천경찰청 관계자들과 협력 소통 간담회 가져 -
- 그간 사업추진 성과와 인천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 논의 -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스쿨존 단속 증가, 조례 개정 등 성과 -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인천경찰청(청장 송민헌) 주관으로 19일 인천경찰청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과 자치경찰 추진성과와 인천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협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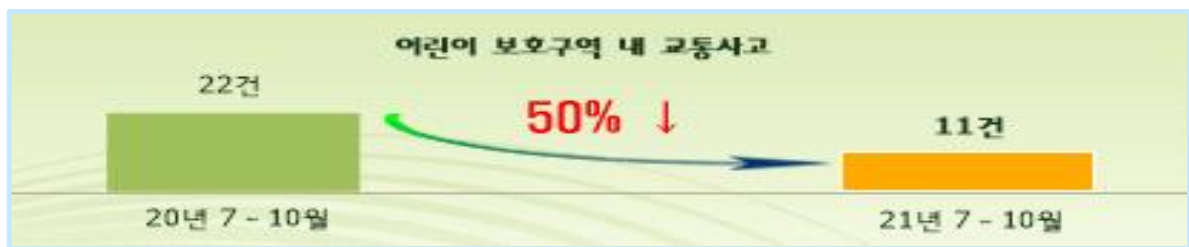
이날 간담회는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인천경찰청장 등 13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공식 출범했으며, 9월 15일은 시민토론회도 개최해 시민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개월간 추진한 인천자치경찰 1호 사업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10대 과제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잘된

점과 미흡한 점 등 성과를 되돌아보며, 자치경찰 시행에 대한 인천 시민과 현장경찰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영상으로 시청했으며, 향후 자치경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21. 7~10월)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 전, 전년 동기 대비(22→11건) 50% 감소했고, 스쿨존 내 주정차 단속(7→966건)도 크게 증가했다. 또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인천시 조례를 개정해 스쿨존뿐만 아니라 통학로에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예산확보가 가능해졌다.



아동학대 사건도 엄정 대응해 아동학대 행위자 검거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 21.7~10월) 등 전년 동기 대비, 검거(154→341건)는 121.4% 증가, 보호조치(70→162건)는 131.4% 증가됐으며, 선제적인 학교폭력 분위기 제압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가 전년 동기 대비(119→112명) 5.9% 감소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 내실화 방안,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병실 확보 등 치안행정, 지방행정 연계 사업을 확대

하는 한편, 시민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해 인천지역에 맞는 자치경찰 구현을 위한 논의를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경찰의 현장 대응력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안 정책 수립을 목표로 맞춤형 치안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 관계기관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병록 위원장은 “ ‘어린이 안전 강화’에 노력해 주신 자치경찰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자치경찰위원회와 인천경찰청 관계자들과의 주기적인 협력소통을 통해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및 시민과 함께하는 치안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시민 안전 정책에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부터 각 경찰서별 지역특성에 맞춰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적극 발굴 제공해 자치경찰제의 조기정착과 치안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붙임> 사진자료

<11.19.(금) 간담회 사진>

